

Monthly Customs Newsletter



【 대표관세사 인사말 】

온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메르스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말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됩니다.

가뭄과 함께 찾아온 여름으로 대한민국이 말라있습니다. 경기도 그렇고 질병에 각종 사건 사고로 어려움의 연속인 2015년이네요. 하루빨리 장마가 와서 마른 땅을 적셔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휴가 계획 세우시고 활기찬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관세법인 청우 대표 관세사 봉용남



【 관세동향 】

▶ 인디브랜드 육성해 한국판 샤넬로 키우자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 유학파 및 의상학과 출신 전문인력이 대거 동대문, 홍대 앞 등 인디브랜드 디자이너로 합류하면서 개성 있고 독특한 제품이 많아졌다. 소비자 취향도 유니클로, 자라 등 SPA 브랜드에 익숙해져 개성이 넘치고 품질 좋은 인디 브랜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으며, 최근에는 수백 개의 인디브랜드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스타일난다', '원더플레이스' 등 일부 인디브랜드는 대기업 브랜드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러한 인디브랜드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인디브랜드 수출 활성화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디브랜드 개념 및 현황, ▲인디브랜드 트렌드 의미와 사례 및 육성 전략, ▲인디브랜드 해외진출 사례 등 국내 인디브랜드의 최근 현황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까지 이뤄졌다.

인디브랜드란 독립 브랜드이자 자기(Self) 브랜드로서 옷, 신발, 안경, 가방 등 패션 아이템에서 생활 잡화에 이르는 제조업 전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젊은 감각과 아이디어로 창업해 '자기 스타일'을 추구한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작은 모자 가게에서 출발한 '샤넬', 이화여대 앞 3평짜리 매장에서 창업한 '이랜드'도 초기에는 인디브랜드였던 셈이다.

무협은 최근 한국 문화를 선호하는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우리 인디브랜드가 입소문을 타면서 중국 관광객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 참석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는 "인디브랜드는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혁신적 감각을 통한 고도의 실험정신, 대자본이 아닌 소자본으로 출발하는 도전정신, 대형 유통매장이 아닌 골목 내 작은 상권에서 시작하는 개척정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 된다."며, "이들이 브랜드의 개성을 잃지 않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은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협 김춘식 정책지원본부장은 "인디브랜드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사례로, 기업이 정신이 부족한 최근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며, "이미 해외 시장에서 통한다는 상품성을 증명했고, 중국에서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부진을 만회하고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새로운 분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관세동향 】

▶ 흰우유, 1년 만에 중국 수출 길 다시 열려

우리나라 흰우유의 중국 수출길이 1년 만에 다시 열렸다. 빠르면 6월 중 중국 소비자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일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 3개소의 흰우유(살균유) 제품이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에 등록을 마쳐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5월 1일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품목) 등록제'를 시행했으며, 살균유 품목에 살균기준 준수와 유통기한 검증 등 추가적인 기술검토를 요구해 등록이 보류돼 수출길이 막혔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제분유, 멸균·가공유, 치즈 등 유제품 생산업체 58개소가 중국정부에 등록돼 수출 중인 상황이다.

이번에 등록된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는 매일유업 상하공장, 연세우유 아산공장, 서울우유 거창공장 등 3개소로 수출용 포장지 제작, 생산일정 조정 등 사전 준비 후 올 6월 중 수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살균유 제품의 중국 수출 재개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 한국유가공협회, 관련 기업 등 업계와 협력해 중국 관계당국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우리나라 살균유 제품이 중국정부에 등록되도록 한·중 실무협의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공해 설명하고, 중국정부의 빠른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초 이뤄진 중국 점검단의 국내 유업체 현지실사에 대응해 민·관 합동 지원팀을 구성해 사전 점검·지도를 하는 등 우리 유업체의 실사 대응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흰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을 중국에 계속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조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협력해 중국 현지 홍보·판촉 행사 등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 지침 마련, 검역증 현장 발급, 수출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최선의 검역검사 서비스 제공은 물론, 수출 제품과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세동향 】

▶ 소비재 격전지 중국 선진국과 정면승부 펼쳐야

중국 소비재 시장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소비재 수요 고급화로 수입 수요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으로 옮겨가는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6월 2일 발표한 '소비재 격전지 중국, 아시아 문화 특색이 반영된 고급화 전략으로 승부해야'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의 소비재 수입규모는 2007년 435억 달러에서 지난해 1,576억 달러까지 성장했지만,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6%에서 4.5%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독일(3%p), 이탈리아(1.8%p), 미국(2.1%p) 등 선진국의 점유율은 상승해 우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소비재 시장규모가 커졌음에도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하락한 데는 선진국과의 심화한 경쟁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1등 품목은 2007년 59개에서 지난해 43개로 줄었는데, 대부분 유럽국가에 자리를 내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다 그 자리를 빼앗긴 품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이탈리아(11개), 프랑스(4개), 기타 EU국가(5개) 등에 자리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소비재 수입수요가 확대일로에 있는 만큼 對중 소비재 수출 증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한·중 FTA의 관세인하 효과를 활용하는 한편, 주요 경쟁국으로 떠오른 유럽·미국과 차별화하는 고급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로 주요 수출 유망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기까지 10~20년이 걸려 단기적 효과는 크지 않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EU, 미국 등 선진국과 FTA를 체결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그 활용 여지는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국제무역연구원 정혜선 연구원은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실제 경쟁 상대는 선진국"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한·중 FTA 관세인하 효과를 누리는 한편, 경쟁국인 유럽과 차별화한 아시아의 문화적 특색이 담긴 고급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관세동향 】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여행자와 승무원의 면세범위가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관세청은 규제개혁 추진 과제와 환경변화에 따른 개정수요 등을 반영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6월 1일 입안예고했다.

먼저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면제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할 때 전체 구매금액에서 미화 600달러를 공제한 후 산정한다. 단, 입국여행자와 승무원이 해외에서 취득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다음으로 관세청 규제개혁 추진 과제를 반영해 꾸준히 늘고 있는 중국인 단체여행자에 대한 통관 편의를 확대한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여행객의 신고대상 물품을 인솔자가 일괄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입 불가 물품을 승무원이 위임해 반송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인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이 없으므로, 비행증명서 또는 출입국 선원자격 심사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여행자가 세관에 반송을 의뢰하면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반송하는 방법을 신설해 편의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개정수요와 감사 지적 사례를 반영해 승무원과 큐리어(관광안내원)의 면세범위를 상향했다. 항공기 승무원의 면세범위는 기존 미화 100달러 이하에서 150달러 이하로 높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의 1ℓ 이하 주류를 3개월 1회에 한해 구매할 수 있도록 주류 면세규정을 마련했다. 선박 승무원은 항행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은 미화 60 → 90달러 이하, 1개월 이상은 미화 120 → 180달러 이하, 3개월 이상은 미화 180 → 270달러 이하로 상향하고, 과세통관범위도 기존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했다. 큐리어 또한 기존 미화 100달러에서 150달러 이하로 면세범위를 높였다.

이 밖에도 외국환 반출입신고 감사결과를 반영해 신고대상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 이외에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 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 관세동향 】

▶ 대금지급 거절 등 對중 무역결제 분쟁 빈발

최근 중국 경기가 하강 기조를 보이고 對중 무역결제 조건도 나빠져 우리 무역업계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6월 11일 발표한 '對중국 무역결제 위험과 분쟁사례'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경기는 하강기조에 들어섰고 수입도 대폭 줄면서 우리나라의 對중 수출 감소는 물론 대금지급에 대한 안전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 1/4분기 중 중국경제 성장률(7.0%)이 2009년 1/4분기(6.6%)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중국의 현장 경기를 반영하는 전기사용량이 올 3월 들어 70개월 내 최대 감소폭을 보였으며, 올 1/4분기 철도화물 운송량도 전년 동기대비 9% 감소해 2010년 수준으로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의 수입액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올 1~4월에만 17.3%나 줄었다. 특히 지난해 청도의 A社(중국기업)가 창고의 보관증을 위조해 무역금융을 사취하는 대형사건(160억 위안, 약 2조 8,000억원)이 발생한 이후 중국 내 은행의 신용장 개설 등 무역금융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 수입상이 수출상의 요구를 받아 신용장(L/C) 개설을 신청하면 대부분 거절되거나 100% 이상의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실제로 L/C를 이용한 우리 기업의 對중 수출 결제비율은 2010년 15.9%에서 올 1/4분기에 9.9%로 하락했다. 결제 안전도가 가장 양호한 일람불(수출대금 즉시 지급) L/C 이용률도 같은 기간 9.8%에서 4.6%로 줄었다. 반면 대금회수 위험이 높은 외상수출(추심방식 중 인수도 방식 + 송금방식) 비중은 2010년 51.4%에서 59.4%로 8.0%p 높아진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이미 결제분쟁도 다수 발생해 우리 수출업계는 안전도가 높은 신용장 방식을 고수하거나, 철저한 신용조사와 수출보험 부보를 통해 한 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수입업계는 상대방의 신용을 제대로 확인했거나 선적 전 검사가 이뤄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입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관행을 정착할 필요가 있으며, 무역회사에서 입금구좌 변경은 흔치 않은 일이므로, 변경 요구를 받으면 유선이나 팩스로 확인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국 내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면서 우리 기업에 인터넷(메일)으로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수입을 증용할 때는 기업 관련 서류와 생산능력 확인(현장 방문)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무협 최용민 북경지부장은 "경기가 하강하면 수출상과 수입상 모두 거래를 서두는 경향이 강해 이를 노려 거절하기 힘든 수만 달러대 선수금을 요구하거나 수출상에게 대금회수 위험이 높은 사후 송금방식 결제를 요구한다."며, "지금은 수출입 증대에만 매진하기 보다는 신용조사(보험가입)와 현장 방문을 통해 대금지급 위험을 미리 낮추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 관세동향 】

▶ 냉랭한 한·일 관계 반한(反韓) 감정 고조로 한국제품 기피

201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장기적인 對일 비즈니스 침체가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는 6월 18일 발표한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對일 비즈니스 동향' 보고서에서, 2012년 하반기부터 심해진 한·일 관계 악화로 막걸리, 빵, 농수산물 등 주요 B2C 제품의 수출이 지난 3년간 최대 7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막걸리 등 주요 제품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한류 붐'으로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했으나, 2012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급감해 지난해엔 2012년과 비교해 막걸리(-74%), 빵(-53%), 농수산물(-39%) 등 일반소비자 대상 제품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이에 일본과 거래 중인 우리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주일한국기업은 2013년엔 비즈니스 애로사항의 대부분이 '급격한 엔저'였으나, 지난해와 올해엔 '한·일 정치관계 악화'라고 답한 비중이 각각 28%, 30%로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는 제품의 '질'이 아닌 '국가'를 기준으로 한국제품을 기피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온라인상에서 한국제품을 사용하는 일본인에 대한 비판 글이 늘었고, 한국제품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제품은 판매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소비시장의 분위기에 편승해 기존부터 우리나라와의 거래를 유지해온 바이어의 태도도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 도쿄지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일본바이어 2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과의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이어가 46.7%에 달했으며, 기존에 없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응답도 추가되는 등 장기적인 비즈니스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조사에 응답한 일본 바이어의 64%는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면 한국과의 거래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해 對일 비즈니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올 5월 13~14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경제인회의'에서는 양국 대표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 정치관계에 상관없이 양국의 경제교류는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한 바 있다.



[FTA 뉴스]

▶ 한·중 FTA 특화한 사업 모델 개발

한·중 FTA 정식 서명이 이뤄진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과의 FTA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한·중 FTA에 특화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급한다.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對중 수출기업이 FTA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중 FTA에 특화한 '10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FTA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이 FTA 무역환경에서 관세혜택, 원산지 규정 등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번에 보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관세청이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FTA 활용기업의 필수지침서 Business Model 40선'을 바탕으로 한·중 FTA에 특화한 모델을 개발해 對중 수출기업이 FTA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자료는 우선 '개성공단 활용 모델'부터 'YES FTA 차이나센터 활용 모델'까지 총 10개의 유형으로 구성했고, 농수산물, 석유화학, 섬유·의류, 전기·전자, 생활산업 등 5대 산업별로 특정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 체계도 제시했다.

또한 모델별로 한·중 FTA에 대한 '활용 예시'와 '적용 팁'을 제시해 중소 수출기업이 FTA 발효에 앞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화장용 스펀지(HS 제9616.20호)는 원재료인 라텍스와 직물을 FTA 비체약국에서 수입하면 각각 8%의 관세를 물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면 0%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고, 국내에서 가공해 중국으로 수출할 때는 관세가 18%에서 0%(10년간 철폐)로 낮아지는 FTA 특혜 관세 혜택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의 넓은 영토와 다양한 기후대 및 복잡한 민족구성을 고려해 지역별 소비자 특성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관세청은 이 자료를 한·중 FTA 특화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차이나-Info(china-info.customs.go.kr)'에 올리고, 기업에 전자우편(e-mail)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30개 세관의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의 상담 직원과 공익관세사에게도 배포해 한·중 FTA 상담 시 기업별로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앞으로도 비즈니스 모델별 FTA 활용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우리 기업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TA 뉴스]

▶ 한·중 FTA 정식 서명

우리나라가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한·중 수교 23년만에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정부는 6월 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Gao Hucheng) 중국 상무부 부장이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한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실질 타결 선언과 올 2월 25일 가서명에 이어 정식 서명을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겨뒀다.

양국 통상장관은 서명식을 계기로 마련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양국 정부와 기업 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과 한·중 산업단지 등 양국 간 통상 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벌인 '한·중 FTA 영향평가'에서 한·중 FTA가 발효하면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나 아지며, 고용은 5만 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 분석한 것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결,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더욱 크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양국 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특히 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늘고, 한류와 연계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통관, 인증, 지적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비관세장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對중 수출 확대를 이끌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한·중 FTA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떠오르면서 FTA를 활용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의 對한 투자 규모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이 한·중 FTA 혜택을 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회 절차를 완료하면, 양국이 서면으로 '국내 절차 완료'를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부터 FTA가 정식 발효한다.

한편 양국 정상은 한·중 FTA 정식 서명을 축하하는 친서를 교환해 한·중 FTA에 관한 기대와 지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친서 교환이 양국 정상의 한·중 FTA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FTA 뉴스]

▶ 한·중미 FTA 협상 돌입... 2,000억 달러 시장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장관이 6월 18일 미국 휴스턴에서 중미 6개국과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한·중미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FTA 협상을 시작하는 중미 6개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로 1960년에 체결한 '중미경제통합 일반협정'에 따라 중미 경제통합기구인 SIECA(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를 결성하고 관세통합과 무역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 간 무역 규모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늘어 우리나라 200여개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5만 명가량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이번 통상장관 회담에서 윤상직 장관과 중미 통상장관은 이번 FTA로 상호 보완의 산업구조를 보이는 한·중미 간 교역과 투자를 키우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그동안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해 펼쳐온 중미 지역 상수도, 전력망, 태양광 등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상생형 비즈니스 협력관계로 발전해 가자고 뜻을 모았다.

윤 장관은 FTA 협상과 함께 ▲한·중미 간 교역과 투자환경 개선과제 발굴, ▲한·중미 중소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등 비즈니스 협력모델 도출, ▲한국 기업의 중미지역 경제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미 비즈니스 촉진 작업반' 설치를 제안했다.

산업부는 중미 6개국이 중남미에서 국민 총생산(GDP) 규모 5위(2,098억 달러), 인구 규모 3위(4,350만 명)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며, 한·중미 FTA는 중미 6개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첫 FTA로 타결이 이뤄지면 중미시장을 선점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 간 교역규모가 지난해 기준 50억 달러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전자, 섬유 등이고, 중미의 주요 수출 품목은 커피와 열대과일, 금속 등으로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보여 이를 바탕으로 FTA를 체결하면 상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객께 드리는 청우의 약속

- ❖ 최상의 고객 서비스 약속
- ❖ 최고의 전문가 서비스 약속
- ❖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기억이익 실현 동참의 약속
- ❖ 변함없는 고객 관리와 기업 비밀유지 준수의 약속

Contact Us

- Tel. 032-744-8001 (代)
- Fax. 032-744-8006 (代)
- E-mail. newsletter@cwcustoms.co.kr